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2월 17일(금)

..(음력 1월 21일)..

Пятница

17 февраля 2017 г.

№ 6(11672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5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슬라와(영예)>광장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 28주년 추념 집회가 있었다.

(이에식기자 촬영)

참전 용사 추념

지난 15일(수) 러시아 '국제주의자-군인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슬라와(영예)>광장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 28주년 추념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해외 분쟁지역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추념하며 추모 화관을 헌화하고 전몰 장병들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사할린주 알렉산드르 제르노워이 부지사는 이날 "전 시대에 걸쳐 소련군과 러시아군은 적들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무기와 높은 전투력으로 조국을 지키며, 테러와 싸우고, 시리아에서 평화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전투지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전몰한 우리의 영웅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라고 추념사를 했다.

현재 약 1700명의 해외분쟁지역 참전용사들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생활여건 향상이 시급한 상태로 지난 일 년 반 동안에 71명 참전용사들의 생활여건이 호전되었을 뿐이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은9년 1개월 19일간으로 대조국전쟁 보다 두 배나 길었고 약 1만5천명이 전사하고 이들 만 명의 가족에 타격을 주었다.

그중 사할린, 쿠릴 45명의 장병이 러시아 파견전투로 분쟁지역에서 전사했다.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곳은 아프가니스탄과 체첸이다.

(취재: 예식기자)

전 사할린주지사 호로샤원 곧 재판 받아

2015년 3월 4일 새벽에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었던 전 사할린주지사 알렉산드르 호로샤원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 14일(화) 특수 항공기로 사할린에 도착했다. 체포 후 전 주지사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전 부지사 세르게이 카렐킨, 전 주지사의 참서관 안드레이 이크라모브와 사할린주농산업식품부 니콜라이 보리소브 전 장관도 사할린에 왔다고 알려졌다.

거의 2년간 모스크바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사할린 주지사와 그의 공모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2월 20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재판소에서 비공개 형태로 진행된다.

호로샤원 전 주지사와 공모자들은 5억 2200만루블리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국이 주장하는 가운데 수사 중 공모자들의 재산 15억 루블리 상당의 현물과 현금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기자)

단신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극동연방구 대표로 러시아연방 사회원 간부회 선출

러시아 사회의원 간부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사회의원들은 지역의 적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사회원 간부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명은 본 러시아연방 사회의원 대표들(총재, 제1부총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위원들), 나머지는 각 연방구를 대표하는 지역 사회의원 대표들이다. 극동연방구 지역 사회의원 지도자들의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가 다시금 극동연방구를 대표해 러시아 연방 사회의원 간부회에 선출되었다고 사할린주 사회의원 홈페이지는 공지했다.

장재실 사할린선수, 터키 국제태권도대회에 서 동메달 획득

2017 터키 오픈 국제태권도 대회가 안탈리아에서 개최되었다. 사할린에서 선수 몇 명이 참가했는데 체급별 63킬로그램 이하 그룹에서 2명의 사할린 선수가 승부를 겨루었다.

사할린 태권도 대표팀의 김 제니스 감독에 따르면 이 그룹의 참가 선수는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사할린의 장재실 선수는 성인그룹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그 외에 대학생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에 참가한 사할린의 대표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사할린주스포츠부는 전했다.

장원창 원장, 임기 끝나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의 임기가 끝나 2월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3년 동안 장 원장의 지도 아래 많은 한러 축제, 한국유학설명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사할린과 한국 간 교류확대에 공로가 컸다.

사할린교육원장으로 김주환 씨 부임

교육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경기도 영일중학교 교장으로 사무했던 김주환(1957)씨가 부임한다는 결정이 2월 15일(수) 났다.

아니와 한인회장으로 이완도 씨 선출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지난 11일(토) 아니와 어린이창작회관에서 아니와 한인회 총회가 소집되었다. 처음에 회의 의정에는 본회 사업결산보고, 회장선거와 운영위원회 선거문제가 올랐는데 허경자 아니와 한인회장이 병으로 인해 불참한 가운데 선거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회원 106명 중 76명이 참가했다. 회의를 찾은 동포들은 많은 열정을 보여 주었지만 사업보고가 없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신임 아니와 한인회장으로 이완도(남, 56세, 개인기업인) 씨를 선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새로 선출된 아니와 한인회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우리 현대인

사할린의 태권도 발전 위해 힘과 열정을 쏟은 김춘하 회장

사할린주태권도연맹 김춘하 회장과와의 인터뷰는 오래 전부터 기획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기되었다. 그가 네웰스크 시민이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태권도 동료들과의 회의 차 방문한 김회장과 한인문화센터에서 만날 수 있었다.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언제 생겼는가라는 첫 질문에 그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김춘하(러어명-알렉세이 안드레예위츠)씨는 어느 선수들과 비슷하게 어릴 적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 축구, 삼보, 복싱을 했는데 특히 동양무술이 흥미를 끌어 아버지 친구 분한테서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인 최 사범은 일본 유학 때 배운 가라테 지식을 소년 춘하에게 전수했다.

동양무술 선수들- 특히 80년대 말, 90년대 초기의 사할린 선수들-은 한 가지 무술만 익히는 게 아니라 여러 무술을 배웠다. 김춘하 씨도 예외가 아니다. 가라테를 한 후 우슈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무술 정신을 잘 받아들이는 그는 우슈 같은 경우 사할린에 잠깐 파견 온 중국인 자매들로부터 거의 3년간 우슈를 배웠다. 실력을 인정받아 중국 사원에서 10년간 몸과 마음을 훈련한 후 마스터가 될 것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10년이면 빠른 속도로 했다. 당시 김춘하 씨는 35세였다.

- 저는 35세니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 등 모든 걸 10년이나 떠나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은 제 나이 58세인데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나이가 좀 있지만 마음은 젊잖아요. - 김춘하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네웰스크해양전문학교를 마친 그는 <트롤함대기지>국가기업에 취직해 기술부서의 산하 실험그룹에서 10년 동안 발명 실용 활동을 했다. 기술에 대한 발명 재능이 뛰어나 여러 콩쿠르에서 수상하기도 했고 소련 콤포스물 전국청년단체의 수상으로 외국여행을 갈 기회도 잡았다고 한다.

취직 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졌다.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소련에 태권도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사할린도 그 영향을 받았다. 김춘하 씨는 사할린의 유명 태권도 사범인 민태출 씨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태권도에 관심을 가졌다.

네웰스크에서 비로소 많은 제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침 직장에서는 청소년 담당 인스펙터 직위로 옮겨진 시기였다. 그리고 노워시비르스크 체육대학교를 통신으로 졸업했다. 교육에 대한 의욕이 많은 김춘하 씨는 "배우고 배우고 또 다시 배운다"라는 레닌의 말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고 한다.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라고 그는 고백한다.

현재도 그는 다양한 도서를 즐긴다. 예전에는 기술, 발명과 스포츠 등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현재는 자신의 다스림, 역사 등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책을 즐겨 읽는다고 한다.

제자들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어 그는 금방 실력있는 태권도 사범으로 인정받았다. 90년대 초에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국가대표팀 사범으로까지 추대 받은 적도 있었다. 91년 전국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사할린 대표팀은 3명의 사할린 선수가 1위, 2명의 선수가 2위를 차지했는데, 1위를 한 선수들은 네웰스크 출신으로 김 사범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범들의 요청으로 그들을 위한 특별한 마스터클래스(특수 수업)를 한 적도 있었다.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은 김 사범은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었다. 고향인 네웰스크가 편하고 좋았기 때문인 이유다. 그는 이 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김춘하 씨가 태권도 사범을 그만 둔 지는 오래 되었다. 대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현재 네웰스크 청소년스포츠학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는 네 명 모두 김 사범의 제자들이다.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김 사범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 대학생활을 지원해주고 네웰

스크로 돌아와 사범으로 자리잡기까지 뒷받침해주었다. 이제 그의 제자들도 많이 성장해서 활약하고 있다.

10년 전 2006년 김춘하 씨는 태권도 연맹 제2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태권도 사범으로 활약하지는 않았어도 태권도 행사 등은 많은 지원을 해왔다.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꼭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할 만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트롤함대기지>국가기업이 파산하고 난 후 김춘하 씨는 개인업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창업자, 주주로 냉동실, 생선가공 공장운영 등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사할린주 태권도 연맹에는 20여 명의 사범과 1300-1500여 명의 선수들이 있다. 태권도는 오하,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홀스크, 네웰스크(고르노사원드스크 포함해)에 보급돼 있다. 우글레고르스크와 포로나이스크는 사범 문제로 더 이상 태권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

네웰스크 같은 경우 전에 500여 명이 태권도를 했는데 2007년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떠난 이후 태권도 지원자 수는 많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네웰스크는 좋은 스포츠기지가 있어 해마다 겨루기 하는 태권도 선수를 위해 훈련캠프를 열고 있다. 한국 사범들도 종종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방문한다.

태권도가 한국민족 무술인 만큼 한국에서는 사할린 태권도 유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 90년대 초기부터 대구 중구 태권도협회에서 사할린 태권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때 맺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



고 있다.

"연말, 2016년 12월에 함께 태권도를 시작한 임상명, 이춘식 사범, 저와 다른 젊은 태권도 트레이너들이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 스승이자 선배들은 사할린 선수들이 자주 대구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거든요. 이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할린을 찾아옵니다. 훈련캠프도 지원합니다.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범들을 보내주고요. 정말 유의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사할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고맙지요"라고 김춘하 회장이 소감을 말했다.

그외 사할린 태권도 선수들은 많은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국 단체, 기관들과의 교류가 많다. 네웰스크시 같은 경우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시 태권도협회, 그리고 의정부시 경민대학교 태권도 외교과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이번 정월에 네웰스크 선수 7명이 겨울방학 동안 의정부에서 품새 훈련을 받기도 했다.

사할린 태권도에 명망 있는 민태출, 안수학, 임상명, 이춘식 사범들, 사할린 태권도 대표팀 감독 김 제니스 사범을 비롯해 이미 성장한 그의 제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나 행사 계획을 세울 때 다같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는다고 한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선배들의 지원과 협의로 태권도 선수들은 크게 분쟁이 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태권도 연맹 민태출 초대회장, 김춘하 제2차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김 회장과 만난 날은 올 여름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민대학교 태권도 시범팀 (20명)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10일 동안 순회 무대와 훈련 계획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태권도 사범들과 서로 의지하고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이번에 사할린주 태권도연맹은 주한인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었다.

김춘하 회장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표명하고 한국 스포츠이고 게다가 많은 선수들이 한인동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서 양측이 발전하는 데에 서로 큰 도움과 힘이 될 거라 믿는다.

(배순신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오스로바(OstroVa)-2017> 청소년 포럼캠페인 시작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하시에서 열릴 <오스트로와 2017>청년 포럼캠페인에 15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하 구역에서 열리는 청년 교육은 첫째 <성공을 향한 공식>지방자치체 간 청년 교육포럼과 둘째 <2017 자원봉사자>주자원봉사교육 - 두 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포럼 교육장에는 티몴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스미르니흐, 네웰스크 구역들과 오하구역 청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청년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 방향을 제시할 풍부하고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들 즉, 기업, 애국교육, 자원봉사, 시민 활동, 사회적 설계, 지방자치교육의 개인적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교육내용들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 포럼에는 전국, 극동지역과 주 커뮤니티의 전문가들도 참가할 것이다. 포럼은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다.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молодежная форумная кампания "ОстроVa-2017"

С 23 по 27 февраля Оха примет более 150 первых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ной кампании "ОстроVa-2017".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развернутся сразу две первые молодёж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молодёж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рум "Формула успеха" и областная школа добро

вольчества "Доброволец-2017".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ных площадок стан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ёжи Тым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Форумчан ждёт насыщенная и уникал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будут раскрыты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граждан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социально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разработка личного бренд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рум посетят эксперт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кспер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Форум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에 <야스나야 폴라나(찬란한 초원)> 박물관의 소장품 전시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3월 1일 <야스나야 폴라나>박물관에서 출품한 전시회가 열린다.

주문화문서보관부 보도에 따르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을 때...> 프로젝트는 위대한 작가 레브 톨스토이의 작품들 <어린시절>,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부활> 등이 쓰여졌던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해낼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는 4 코너로 나뉘어 구성되는데 <군대실>, <야스나야 폴라나의 작업실>, <하몐니키의 작업실>과 <푸르른 교실> 등은 고전 애호가들에게 작가의 사진과 가족 사진 및 소장품, 톨스토이가 출간한 각 연도별 장편소설, 단편소설과 기사들을 소개한다.

전시회를 통해 작가의 작품과 삶 속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각 주제별 코너들은 톨스토이가 활동했던 작업실 상황을 상상하며 그의 창작실로

들어가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이중 한 코너에서는 녹음된 작가의 목소리도 들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작가의 육필 원고, 소설과 삽화도 접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체호브와 동시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체호브는 톨스토이와 많은 것이 연루돼 있다. 고전에서 '체호브는 산문의 푸쉬킨'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작년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사할린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안톤 파블로비츠의 친구인 이사크 레비탄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다."고 <사할린 섬>책 박물관의 예브게니아 피르소와 관장 대행은 강조했다.

전시 프로젝트 파트너로는 희귀본 소장폰드에서 톨스토이의 전집 90권을 제공한 사할린주유니버설과 학도서관이 되었다.

На Сахалин привезут экспонаты из музея «Ясная Поляна»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 марта откроется выставка из музея - усадьбы «Ясная Поля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проект «Когда не можешь не писать...» позволит воссоздать творческую атмосферу, в которой великий Толстой создавал «Детство», «Войну и мир», «Анну Каренину», «Воскресение».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четырех блоков. «Военный кабинет», «Кабинеты в Ясной Поляне», «Кабинет в Хамовниках» и «Зелёный кабинет» познакомят поклонников классика с его личными вещами, фотографиями писателя и членов его семьи, изданиями романов, повестей и статей, созданных Толстым в разные годы.

Выставка позволяет узнать о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в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е писателя. Тематические блоки помогают представить обстановку, в которой работал Толстой, проникнуть в его творче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8면에 계속)

책소개

알찬 내용의 <사할린-한국: 3권의 책 이야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1일 (토)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한국: 3권의 책 이야기> 문학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최근에 출판된 사할린 한인 역사와 관련 의 책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행사 진행을 사할린주역사문서보관소 연구원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가 맡았다.

첫 번째 소개된 책은 이미 2년 전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에서 발행된 역사학 박사인 아나톨리 쿠진 교수의 <사할린 한인사>였다.

쿠진 박사는 “주한인여성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책을 소개한 바가 있었고 책 출판에 대해 새고려신문과 우리말 방송에도 인터뷰한 바가 있었지만 사할린 대중들 앞에서는 처음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사할린 한인 이주과정에 대한 연구를 담은 '사할린 한인사'를 소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사할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주 얘기를 하면서 책에 소개된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를 얘기하기도 했다. 쿠진 박사는 이날 한글로 된 <사할린한인사>가 모국어를 잘 모르는 사할린 한인들 속에서 잘 보급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올 초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진 율리아 준박사의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송환 문제 및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연구 논문서 소개가 있었다. 2015년 12월에 러시아어로 출판된 이 책을 동국대학교(서울) 김중헌 교수가 한국어로 옮겼다. 이 연구서의 출판 프로젝트는 재외동포재단과 사할린주한인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국대학교 김중헌 교수가 보내온 소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연구가들이 사할린한인 연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 연구들이 제한돼 있고 많이 협소했다는 걸 깨달았다.

책 서론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본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사건 서술에 있어 기본적으로 연대순의 원칙을 고수하려 했으나, 일부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은 사료학과 사학사의 토대에 대한 개관으로 시작하여 사할린 한인공동체에 '디아스포라'

는 용어의 적용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런 이론적 문제들 간에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 비정상적인 삶의 조건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힘들고도 독특한 과정의 역사, 송환·시민권·민족정체성·사회운동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의 역사 등이 존재한다."



진 율리아 책을 한국어로 출판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한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주한인회 부회장은 이날 사할린한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구세대를 많이 회상했다.

러시아 외무성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블라지미르 노소브는 이날 책 저자들과 번역한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할린-한국 간 교류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소개된 책은 사할린한인 1세 류시옥(필명: 춘계)의 '산중반월기'란 책이다. 일기체로 쓰인 이 책은 한국어로 돼 있는데 박승의 전 사할린국립대 교수가 이 저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2개 국어로 출판했다.

시인이자, 해방운동가이며 작가였던 류시옥 씨는 1915년(1962년 탄광 사고로 사망) 경상북도 출신으로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남은 여생을 이 곳(1962년 탄광 사고사건으로 사망)에서 보내게 되었다. <산중 반월기>는 1957년에 크라스노고르스크 삼림회사 소속 건초생산단의 요리사로 일할 때 쓴 일기다. (책에 대한 소개는 본 신문 2015년 11월 20일자부터 몇 호에 걸쳐 게재되었음).

류시옥이 육필로 쓴 <산중반월기>는 2006년에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강제동원 구술기록집으로 발간되었고, 한자가 많고 해석이 필요해서 2013년에 방일권 한국외대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해석과 함께 <오호츠크 해의 바람>이란 책으로 출판했었다. 이번에 바로 이 책을 박승의 씨가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러시아 감수는 사할린국립대 교수 엘레나 이콘니코와 박사가 맡았다.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박 교수는 이번 행사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콘니코와 교수는 이날 책을 소개하면서 춘계란 인물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또한 사할린지역역사연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출판했음을 알리며 사할린주 내 모든 도서관들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은 소개된 책 3권 모두는 한국에서 사할린 한인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저자, 번역원 등 모든 출판 관계자들에게 출간을 축하했다. 그는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한 첫 행사는 <사할린 섬> 체호브 책박물관에서 개최된 양 세르게이 작가의 출판기념회였다고 회고하며 이번에 3년간 임기가 끝날 무렵 교육원 원장으로서 마지막 참석한 이 행사장도 역시 체호브 책 박물관이라고 밝히고 행사 참가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사할린-한국: 3권의 책 이야기>행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된 가운데 알차고, 재미있고, 참가자들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4호의 계속)

■ 소유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생활자의 연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할 것

■ 사할린에 계속 남는 것을 희망하는 한인들에게는 1인당 1천만 엔씩 보상할 것

■ 사할린 거주 한인들의 민족문화 재생을 위해 민족학교와 문화센터를 건설할 것

■ 사할린 거주 한인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

■ 일제시대에 사할린에 왔다가 러시아 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할 것

위의 조항에서 <한인노인협회>가 한인 ‘1세’를 특히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고령이기에 영주귀국 및 보상 정책을 마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요구사항은 영주귀국 대상을 1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한일 적십자사가 발표한 후 크게 논란이 된 영주귀국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이주 또는 사할린 출생자

■ 러시아 국적, 또는 무국적자(북한 국적 제외)

■ 고령자, 무자녀 또는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 정신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지역 구분 없이 2인 연령을 합산한 고령자 우선

※ 2004년부터 대륙에 거주하는 1세도 포함

※ 2008년부터 영주귀국 대상자와 결혼한 비대상자(1945년 이후 출생자)도 포함

한일 적십자사는 또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 사항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한국	일본
이동 및 방문	1세, 영주귀국 대상자의 배우자, 장애인자녀의 귀국항공료 지원 부모 사망 시 2세의 한국 방문 지원(재외동포재단)	1세의 귀국항공료 지원 영주귀국자의 사할린 역방문 시 왕복항공료와 체류비 지원 사할린 잔류 1세의 모국 방문 시 왕복항공료와 체류비 지원
주거	국민임대아파트 제공	안산 고향마을, 인천 사할린복지회관 건설비 32억 엔 지원
정착	1세, 영주귀국 대상자의 배우자, 장애인자녀의 집기 및 비품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통한 생계비 혹은 특별생계비 지원 의료비, 장애수당 지원 사망 시 장제비 지원	1세의 집기 및 비품비 지원

고국에 오려면 짝을 맞춰라?

고령의 한인 1세들이 먼저 귀국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사할린 한인들에게, 양국 적십자사의 발표 내용은 청천병력과도 같았다. 그 규정대로라면 사실상 한인 1세의 영주귀국만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징용될 때는 부모형제와 헤어지고, 태평양 전쟁 중에는 사할린에서 일본 본토로 끌려가느라 가족들과 또 한 번 헤어져야 했던 아픔을 간직한 이들에게, 양국이 제시한 영주귀국 방안은 '귀환'을 명목으로 또 다시 가족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일 뿐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인간적인 영주귀국의 조건은 또 있었다. '2인 1가구'라는 황당한 원칙이 그것으로, 이로 인해 당시 사할린에서 발행되는 한글신문 <새고려신문>에는 종종 아래와 같은 문구가 실리곤 했다.(cafe.naver.com/sekoreasinmun)

"배우자를 찾습니다. 19XX년 X월생 여자가 19XX년생 이상 나이의 남자분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영주귀국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름은 XXX입니다.

☎ XXX-XXX."

아니,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데 배우자는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당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그중 하나는 인천 사할린동포복지관이나 안산 요양원 등의 시설에 홀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인 1가구를 형성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었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Помимо реформы письменности ван Седжон славился и другими делами. Велик его вклад и в политику, и в военное дело (о разгроме японских пиратов мы уже с вами говорили), и в культуру Чосон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еджон вел свою политику на основе конфуцианства. Ему удалось улучшить орган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опираясь на людей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социальных слоев, как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Он ввел конфуцианство как новую социальную норму – и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и в ритуалах, и в бытовую практику. Сам написал несколько книг о конфуцианстве.

В первое время Седжон даже защищал конфуцианство, устраняя его 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перников – буддизм и ислам. Он запретил всем буддийским священникам появляться в Сеуле, вел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ривилегии и имущество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Однако позже, когда конфуцианство уже крепко закрепилось на своих позициях, он сделал послабление и построил несколько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А вот исламу не повезло – в 1427 г. Седжон издал декрет против мусульман. Им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носить их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открывать места моления, а мечеть в Кэсоне была закрыта. Во время всего периода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ислам больше не появлялся на корейской земле.

Седжон был хорошим военны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Он создал несколько военных инструкций военным для усиления силы войска, поддерживал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пушек. Несколько мортир и арбалетов с горящими стрелами были введены в его правление, также как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роха.

Седжон очень интересовал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и желал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труда корейских крестьян. Была издана книга Нонсаджиксол, в которой собр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Кореи. Включала книга и сведения о необходимых улучшениях и новых изобретениях, которые нужны для увеличения урожая и облегчения работы.

Для улучшения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был издан указ о прогрессивном налоге, зависящем от размера урожая. Указ позволил крестьянам продавать излишки зерна. В деревне появилась стабильность, было простимулирова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крестьяне почувствовали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излишки зерна не будут отбираться несправедливо. За счет распахивания северных земель увеличился хозяйственный фонд обрабатываемых земель. Во времена неурожая и голода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акромов распределяло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зерно среди бед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Седжон желал, чтобы крестьяне постоянн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и методы работы и освоения земель.

В 1420 г. Седжон учредил придворную академию Чипхёнджон (Зал достойных), ученые которой и изобрели хангыль. Помимо алфавита, были созда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литературы, сочинения, дан сильный толчок для развития искусств и культуры. Сам ван сочинял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его кисти принадлежит несколько корейских картин, выполненных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для Азии манере.

Седжон приказал создать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фис Квансып-токам,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л заведовать музыкой. Седжон поручил Пак Ёну упорядочить использовавшуюся в ритуалах поклонения предкам китайскую музыку и гармонично объединить ее с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ой. Кроме того, для новой музыки были созданы н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такие как пхёнгён и пхёнджон, а записывали новую музыку с помощью джонганбо (особая корейская музыкальная нотация – способ фиксации музыки с помощью письменных знаков).

Седжон очень чтим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В 2007 г.

по решению Ли Мён Бака,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началось сооружение отдельного города, который возможно стан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столицей РК. Город сразу же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Седжон по имени величайшего по мнению корейцев чосонского вана. На корей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периода Седжона можно также посмотреть в музее, находящемся под главной площадью Сеула Кванхвамун (вход в музей под статуей вана Седжона).

Рисунок 1. Памятник вану Седжону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ниги,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1 февраля,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состоялс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ахалин – Южная Корея: история трех книг», на которой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книги,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изданные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двух лет.

Открывая вечер, ведущая презентаци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я Дин,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община является мостом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сегодня книги стали еще одним «кирпичиком» в основании взаимного понимания друг друга.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се три книги являются плодом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авторов, переводчиков, литературных редакторов.

Первой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книга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натолия Тимофеевича Кузина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была издан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В основу монографии лег трехтомник ав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Кузин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ереселении на Сахалин корейцев и их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крае, охватывая временной отрезок с конца 19 века до начала 21 века. Автор отдельно описывает историю корейцев на севере и юге Сахалина.

В этот вечер А.Т.Кузин поделился интересными фактам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посетовал,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приобретают книгу на корейском, в силу плохого знания родного языка и сообщил, что это первое такое широ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этой книги на публике (не считая семинара,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а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чему он несказанно рад.

Книгу историка Кузин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ереве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Мун Джун Иль и Кан Джон Ха.

Вторая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монограф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Юлии Ивановны Дин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которая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вышла из печати.

Чуть больше года назад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этой книги, изданной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за это время, люди,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проблематикой и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анной монографией.

Переводчиком этой книги стал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нгук (Сеул) Ким Джон Хон, которому принадлежат переводы нескольких знаковых книг по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е в Азии.

Ученый Ким Джон Хон представил сахалинской публике свой отзыв о работе исследователя Юлии Дин, где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труды сахалинк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нига поможет южнокорейцам глубже узнать о проблема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Особое место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книг занял рассказ об издании в России книги Лю Сиук (творческий псевдоним Чунге) «Полмесяца на полевом стане». В нашей газете подробный рассказ о книге и его авторе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ноябре 2015 г.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но еще раз напомним содержание.

Лю Сиук, писатель и поэт, писавший только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пал на Сахалин п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японцами. Семья его осталась в Корее. «Полмесяца на полевом стане» – это дневниковые записи автора, которые он сде-



лал, будучи поваром на полевом стане (Красногорский лес-промхоз) в 1957 г. Эти записи попали в руки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ксилографически (текст содержит множество иероглифов), а затем ученый-исследователь Бан Иль Гвон, «переложил» его на соврем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делал комментарии, приложил фотодокументы и выпустил в свет книгу под названием «Ветер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Именно эта книга «Ветер Охотского моря» стала объектом для перевод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еревод сделал бывший доцент СахГУ Пак Сын Ы (Ю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 сожалению, сам переводчик не смог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О книге и его авторе Лю Сиук очень ярко и эмоционально рассказала литературный редактор книги,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В этот день поддержать авторов, сказать добрые слова реш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Джан Вон Ч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вице-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Ким Хон Ди и др. Кстати, имен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издание монографии Юлии Дин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Два часа общения прошли очень быстро, ведь история, изложенная в этих трудах, интересна и каса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а.

ГОТОВИМСЯ К ВСТРЕЧЕ КРУИЗНОГО ЛАЙНЕРА
КРУПНЕЙШЕГО ТУРОПЕРАТО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2 000 турис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УСЛОВИЕ -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т начального уровн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 2 месяца (март, апрель)
СТОИМОСТЬ ДЛЯ СЛУШАТЕЛЕЙ - бесплатно
По окончании выдается сертификат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САХГУ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ОСНОВЫ
ЭКСКУРСОВЕДЕНИЯ»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ам:

8 (4242) 770-222, 770-666, 755-356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Б ООН осудил Пхеньян за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13 февраля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ровёл экст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единогласно было принято заявление для печати с осуждением проведённого накануне Пхеньяном испытания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В заявлении говорится, что члены Совбеза «серьёзным образом осуждают самые последние запус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осуществлённые 11 февраля 2017 и 19 октября 2016 года.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эти запуски являются серьёзным наруш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СК по резолюциям СБ ООН. Кроме того, в принятом документе выражено требование к Пхеньяну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нарушений резолюций.

Вместе с т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пригрозили «дальнейшими существенными мерами» в случае повторения подобных действий. Проект заявления был составлен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ой. Заседание было созвано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Напомним,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твет на частые провокации Севера СБ ООН принял две резолюции и девять заявлений для печати.

МИД России: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 «вызывающе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СК требованиями резолюций СБ ООН

Москва расценивает ракетный пуск, осуществлённый Пхеньяном, как «вызывающее пренебрежение» требованиями резолю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комментарии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и и печати МИД России.

В нё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та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е может не вызывать сожаления и озабоч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е дипведомство призвало «вс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ороны проявлять хладнокровие,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действий, ведущих к дальнейшей эскалации напряжённости».

В документе говорится также, что в Москве «убеждены в безальтернативност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ключая ядерную, единственно возможными -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 средствами. Путь к миру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лежит в русле отказа от конфронтации в пользу усилий по общему оздоровлению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Сеуле появится комплекс памятников борцам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сеу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Содэmun-гу будет создан комплекс памятников борцам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эрии Сеула,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а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плана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сто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1919 года.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еализацию 17-ти проектов по трё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ни охватывают создание объектов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пропаганды, посвящённых движению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е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а также улучшение муниципальной систем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активистов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лан создания комплекса памятников борцам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столич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Содэmun-гу памятного музея в честь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ое было учреждено в Шанхае 13 апреля 1919 года посл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К растут цены на шоколад

С 2007 по 2016 год в РК наблюдается постоянный рост цен на шоколад.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если брать ситуацию в 2015 году за 100, то в 2007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равняется 56 пунктам.

В общем за девять лет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77,6%. Вместе с тем, ежегодно фиксиру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импорта дорогостоящего шоколада. По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2012 по 2016 год импорт шоколадных изделий вырос на 30% со 170 млн долларов до 220 млн долларов. Отечеств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шоколада находится в нестабильной ситуации.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в 2012 году продажи шоколадных изделий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оставили 1 млрд 46 млн долларов. В следующие два года отметка сократилась примерно на 3% и 5%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2015 году, между тем,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рост в 9,8

(RKI)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одборку материалов собствен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лега Кирьянова** о подготовке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2018 в Пенчхане.

Огонь не погаснет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зентовали факел Игр-2018

Церемония презентации факела Олимпиады-2018 прошла в хоккейном Дворце спорта в городе Каннун. Этот город наряду с Пхенчханом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двух основных кластеров олимпийских объектов, где пройдут состязания.

Цвет факела и элементы орнамента напоминают древний белый фарфор, которым славилась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 давних пор. Общая длина факела - 700 мм. Это не случайно. Средняя высота Пхенчхана, а также в целом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где расположено этот местечко, составляет как раз 700 метров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В факеле применено несколько оригинальных инженерны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олимпийскому огню не гаснуть даже под сильным ветром.

Факел очень эргономичен, 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его создатели, все сделано так, чтобы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факел могли держать рук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На Олимпиаде в Пхенчхане переводить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будут роботы

Южная Корея в ходе домаш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намерена удивить весь мир новейш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Среди подобных новинок -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оботов-переводчик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общаться людям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Среди арсенала "железных толмачей" - русский язык.

"В ходе Олимпиады мы намерены задействовать роботов с функци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оботы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еревод в рамках нескольких языков, помогая иностранным гостям", - заяв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естной компании Nansom. Она пояснила, что роботы будут способны имитировать мимику человеческого лица. "Это поможет ощущать, будто вы разговариваете не с машиной, а с другим человеком. Мы намерены дальше работать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чтобы сделать роботов более похожих на людей", - добавили в компании.

Сами машины-роботы изготовит местная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FutureRobot, тогда как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GenieTalk по переводу предоставит Nansom. По словам создателей, программа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еревод в рамках 29 языков, включая русский,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и другие. Однако на самой Олимпиаде роботы будут говорить "только" на девяти языках, в том числе и русском. В компании-производителе не скрывают, что они намерены использовать Олимпиаду для рекламы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причем Россия названа в числе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ынков. "Россия, Южная Америк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Китай и Индия - вот регионы, на которые мы нацеле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 заявили в Nansom.

Робототехника - одна из тех отраслей, на развитие которой в Корее делают большую ставку, считая, что они станут заменой "традиционным" локомотивам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общий объем мирового рынка роботов в 2020 г. составит 188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тогда как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91,5 миллиарда.

В РК создан новый способ МРТ-сканирования

В РК создан новый метод МРТ-сканирования, при котором подсвечивается большой участок в организме. Это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группе учёных, занимающихся наномедициной в Институте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наук.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оражённые части отображаются в 10 раз ярче, чем оста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Речь идёт о МРТ-лампе, которая соединяет магнитные наночастицы и парамагнитное вещество через вещество распознавания живых клеток. Эта лампа при встрече с болезнетворными агентами подаёт сигнал через парамагнитные частицы. Ожидается, что технология поможет в диагностике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KBS World)

В Корее назвали основную идею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2018

Корейский режиссер Сон Сын Хван,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за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идею и общее исполнение церемоний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енчхане, приоткрыл завесу тайны над содержанием этих двух крас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ткрытие ОИ-2018 состоится 9 февраля, а закрытие - 25 февраля.

По словам Сона, который дал интервью местной газета "Чунан Ильбо", центральной идеей церемонии станет сочетание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с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ю.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е и баланс нашей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нденций", - рассказал он. Центральным посылом церемоний станет идея мира и объединения, что отвечает как философии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так и ситуаци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цией, которая до сих пор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а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Режиссер сказал, что хотя впереди остался целый год, но времени не так и много. Так, уже до конца февраля они должны отнять все сюже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игрываться на церемониях.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облемы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и из-за погоды. Ведь олимпийский стадион Пхенчхана, который еще пока строится, будет открытым.

По поводу детале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ам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родлится один час, а остальные два часа будут потрачены на выход команд-участниц и протокольные формальност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Олимпийском стадионе в Пхенчхане за церемонией будут наблюдать 35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Южная Корея построит для Олимпиады более 900 км новых автодорог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введет в стро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более 900 км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Такое интенсивное создание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о многом объясня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к Олимпийским играм в Пхенчхане, куда тянут новые шоссе из основных мегаполисов страны.

Соглас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у 12 февраля пресс-релизу, в 2017 г.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автодорог будет потрачено 7 триллионов 3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или более 6,37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Из этой суммы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будут потрачены уже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в стране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появит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918 км новых автодорог на 73 участках.

"Это на 44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показател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638 км новых дорог. Данный скачок объясняется открытием ряда олимпийских объектов в Пхенчхане, куда и вед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магистралей", - поясн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ем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ведомстве добавили, что новые дороги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ят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Пхенчхана и прилегающих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внесу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Расход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етей в РК составляют 30%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Расход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младше 9 лет составляют 1/3 всех расходов домохозяйства.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средний меся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932 доллара. Относительно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3 лет большие расходы связаны 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ми товарами и оплатой услуг нянь, с 4 до 6 лет с оплатой детского сада. В случае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64% расходов пришлось на час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читывая рост подобных расходов и ухудш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родителей стараю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экономить, пользуясь сообществами и сайтами, гд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предметы для детей.

(KBS World)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стретили День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Целый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бы отметить недавно включенный в российский календарь праздник. Он приурочен к третьей годовщине со дня открытия XXII Олимпийских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зимних игр в Сочи.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жно было стат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ого трамплина «К-70».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первыми его опробуют воспитанник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Однако природа внесла коррективы в планы организаторов. Сильный ветер сделал погоду «нелетной» и выступления летающих лыжников пришлось отложить. Но оставшихся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й с лихвой хватило, чтобы создать атмосферу праздника.

Хоккей с мячом – пока еще экзотический гость на площадк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День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грок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клуба «Сахалин» и детской дворовой команды «Южный-41» отложили в сторону привычные клюшки для хоккея с шайбой. Они провели на стадионе «Медик» товарищеский матч по хоккею с мячом. Чтобы уравнивать силы, дворовую команду пополнили взрослыми игроками. Среди них были, в част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нтон Зайцев.

Игра проходила напряженно. На первых же минутах матча «Сахалин» вырвался вперед, забив три мяча. Казалось, исход был предрешен. Но команда «Южный-41» смогла переломить ход матча и вскоре сравняла счет. Концовка игры выдалась напряженной, команды обменялись несколькими голами. В команде «Южный-41» особенно отличился Антон Зайцев, забивший два мяча.

Финальный свисток арбитра поставил точку в острой борьбе. Счет оказался равным: пять – пять.

Играл в хоккей с мячом впервые, понравилось,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Роман Александров, участник команды «Южный-41». – Конечно, разница с хоккеем с шайбой очень заметная. Площадка большая, а клюшка маленькая, непривычная. Но все равно интересно.

– Необычный опыт, – поддержал своего соратника по команде Эдуард Киселев. – Особенно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бороться против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едь специф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нет ни у нас, ни у них.

–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хоккей с мячом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особенно в Хабаровске,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Игра показала, что интерес к этому виду спорта есть 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Для его развития, как и для хоккея с шайбо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поможе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 приобрести ледозаливочные машин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хорошее качество льда на катках. Надо будет смонтировать на площадках освещение, обустроить места для обогрев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аши земляк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вволю играть, формировать сборную региона, чтобы она могла защищать спортивную чест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е праздник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финальные состязания Кубка России по сноуборду в дисциплинах «биг-эйр» и «слоуп стайл» на горе Парковой и ледовая дискотека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Массовы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т день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и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Пострадавшему от пожара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Остров» окажут помощь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аспоряжени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отдал сегодня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Также по его поручению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работает вопрос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страховании имущества всех внесенных в реестр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лучающих поддержку из бюджета.

– Следует продумать, как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расходы на страховку имущества были приемлемыми для хозяйств,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се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йности не становились губительными для сельски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 наносили ущерба казне.

Напомним, утром 12 февраля произошел пожар в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ом хозяйстве «Остров», которое находится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Огонь уничтожил старый птичник, в котором погибло около 15 тысяч цыплят перепелов и 18 тысяч голов маточного поголовья.

– «Остров» понес значительный ущерб, – отметил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егодня мы принимаем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мер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фермеру Сергею Киму вновь нарастить маточное поголовье. В частности, хозяйство закупит яйцо, а мы предоставим помещен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инкубирования и доращивания цыплят. Затем они переедут в здание нового птичника. Оно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умаю,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двух месяцев хозяйство с нашей помощью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ит поголовье перепелов.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дут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который будет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и

Эта тема обсуждалась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оюза «Агентство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Как отметил техни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Алексей Тымчиков, первый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рег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завершивший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апомним,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более 120 студентов техникумов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Они боролись з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по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реди них – поварское и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хлебопечение,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 технология моды,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 флористика, электромонтаж, эксплуатац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машин, сантехника и отоп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ий и социальный уход, ремонт и обслуживание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туризм, дошкольное воспитание,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отеля.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 Мы взяли курс, в частности,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 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 связи с этим у нас возник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ах для ресторанного,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Базой для их подготовки может стать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сервиса. Конечно, потреб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материальную базу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подготовку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ндартами WorldSkills.

По мнению главы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м строительном техникуме треб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подготовку по таким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как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Еще одна растущая отрасль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и –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На Сахали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зд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крупны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развивается птицеводство, внедря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ыращивания овощей в закрытом грунт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отрасль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читает губернатор,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корен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меха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 базе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след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дготовку животноводов, птицеводов, овощеводов. Помощь в создании необходим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базы могли бы оказать ме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специалистах.

–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подготовку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передавать своим студентам знания, отвечающие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 такое поручение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о руковод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 Продумайте систему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олжны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ть для обучения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Можно также приглашать к н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по тем или и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чтобы они провод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своих островных коллег.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юза «Агентство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и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их начинаний.

Для справки:

WorldSkills –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некоммер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и разви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утем гармонизации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тандартов во всем мире посредством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как в каждой отдельной стране, так и во всем мире в целом.

В чемпионатах WorldSkills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как молоды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е, студенты университетов и колледж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22 лет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ов, так и извест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пециалисты, маст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наставники –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ов, оценивающих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ния.

Конкурсанты отбираются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ах. Они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вои техни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и коллективные качества, решая задачи,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ые к реальным. Результат выступления команды говорит не только о лич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чествах участников, но и об уров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общем уровне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на родине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 посетит бизнес-миссия инвесторов из стран Евросоюза

Детали предстоящего визита, которы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осень, обсудят с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Переговоры пройдут на площадке Россий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рума в Сочи.

В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27-28 февраля вош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блоки: «Нов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Повышая эффективность бизнеса.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оста» и «Проек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Ожидается, что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прим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Напомним,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 готовности вести бизне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яви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новых компаний из стран Евросоюза.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отен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оры пришли после состоявшейся для них в Москве презент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региона. Прошла она в офисе Ассоциации европ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 влияте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0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ющих в России.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егодня европейский бизнес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лен 130 компаниям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изменить эту диспропорцию и привлечь значитель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 Евросоюза также в другие важные сферы экономик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ная и лесная отрас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туризм.

К примеру, европейцев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резидентами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порт и туризм). Сегодня в их рамках создаются крупны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объекты. Реализующим данные проекты компаниям предложены льготные услови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налоговые и таможен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Потенциальные партнеры региона из Европы уже озвучили первые деловые предложения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стороны. Это иде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базальтовых матов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теплиц, возведения гостиниц, мусор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комплекса, примен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дорож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утилизации свалок, оставшихся на острове после добычи угля.

Для уточнения план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ригласил европе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чтобы на месте оценить условия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ет регион.

Уже известно, что потенциальные инвесторы в ходе визита на остров этой осенью помимо переговоров в кабинетах намерены посетить площадк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и встретиться там с островными бизнесменами.

Помимо встреч с европ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в рамках Россий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рума в Сочи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дпишет и ряд документов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реди них: план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оциальном и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соглашения о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ах с ПАО «Газпром нефть»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области битумными и смазоч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техническими жидкостями, а также с Республика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центром многокомпонент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компьютерных сред – о созд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ванториум» (это новый форма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тране, в котором приоритет отдан инженерным наукам).

В ходе визита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рум включенные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также подроб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лимпийским опытом Сочи. Сахалину он необходим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уже в обозримом будущем первой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для молодежи – как неофициально называю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문화생활

<산길따라 대양까지>미술전 열려

지난 주말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세르게이 노워솔로브 화가의 <산길따라 대양까지>개인 미술전이 열렸다.

사할린 출신, 레닌그라드 레핀 미술조각건축대학 졸업, 추코트카에서 20년을 살다가 7년 전에 사할린 고르노사위드스크 고향으로 되돌아온 세르게이 노워솔로브는 이번에 40년간 창작해온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했다. 미술전에는 200여 점의 선정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미술작가는 주로 자연과 북방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즐겨 표현했다. 미적 감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전시회가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이에식 기자)



전해철 의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 정착지원 실질적 지원책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월 7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정됐다.

전해철 의원 등 12인(홍익표, 황희, 박정, 소병훈, 박찬대, 오세재, 윤관석, 박홍근, 민홍철, 정성호, 김정우)은 “당시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던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

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 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의, △사할린 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에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설치, △귀국 희망자 조속한 영주귀국 지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각종 정착지원, △사할린동포지원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주철기 이사장 "국회, 재외동포센터 건립 관심 가져달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설립 20주년 기념 ‘글로벌 한민족 컨퍼런스’ 개최

지난 연말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재외동포센터’ 건립 제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2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전체회의에서는 2017년도 외교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법안 검토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재단의 주요 사업계획들을 보고하며, 재외동포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외통위 소속위원들에게 역설했다.

주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의 2017년도 전략목표를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사회의 역량강화 및 모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재외동포차세대 육성 및 지원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동포사업 시행체계 구축 및 발전 등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장은 1,900여개의 재외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 모국연수 사업, 한상 네트워크 사업 등 재단의 주요 세부사업들을 보고하며, 올해 재단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한민족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의 제반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사항들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외동포재단의 당면 현안으로 올해 예정대로 제주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재외동포사회는 차세대 민족정체성 전달교육 및 동포들의 국내외 제반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간곡히 거듭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해 부지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그간 준비해왔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자 동포들의 활동거점이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더이상 늦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강창일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서귀포 이전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요청했다. 또, 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주최하는 ‘세계경제인대회’의 통합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구체적인 계획안 제출도 요구했다.

(월드 코리아)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7

한국의 전래 동화가 재미있어요

(전호의 계속)

(2) 우리 동생은 국제 변호사가 되다 / 미국에서 법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

(3) 학교 후배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 시골에서 교직을 잡았다.

→

(4) 친구는 결혼하다 / 아파트 한 채를 샀다.

→

(5) 그는 친구를 만나보다 / 한국까지 왔다.

→

읽기연습

※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무꾼과 선녀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숨가쁘게 뛰어 왔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 주세요. 포수가 쫓아와요."

"얼른 나뭇단 속에 숨어라."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 주었습니다.

포수가 지나간 뒤에 사슴은 나뭇단에서 나왔습니다.

"살려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총각한테 예쁜 색시를 구해 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금강산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깨끗한 연못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 숨어 있다가 목욕하는 선녀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선녀의 옷을 감추세요."

"어디 네 말대로 해 보겠다."

"그런데, 아기 셋을 낳을 때까지는 선녀가 아무리 졸라도 옷을 뗄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나무꾼 총각은 사슴이 말한 연못가로 가서 숲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하늘에서 세 선녀가 내려와서 옷을 훌훌 벗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선녀의 옷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두 선녀는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날개 옷을 잃은 선녀만은 올라 가지를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선녀 아가씨 울지 마세요. 제가 돌봐 드릴 테니 아가씨는 오늘부터 내 색시가 되어주세요."

선녀는 하는 수 없이 총각의 색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과 선녀 사이에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 후략 -

이 글은 무슨 종류의 글입니까?

사슴은 자신을 살려준 나무꾼에게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선녀는 왜 울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과제학습

1. '-(으)르 바에는, -(으)르 바에야', '-(으)르 법하다', '-(으)르 성싶다', '-(으)르 셈이다', '-(으)르 양으로'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을 두 개씩 만드세요.

(1)

(2)

(3)

(4)

(5)

(6)

(7)

(8)

(9)

(10)

2. 여러분의 나라에 널리 알려진 전래 동화를 소개하여 보세요.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одном из них можно будет услышать запись голоса писателя.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рукописи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книги и иллюстрации.

- Эта выставка – часть большого проекта, посвященного талантливым современникам Чехова. С Толстым с его ввязывает многое. Сам классик признавал, что «Чехов – это Пушкин в проз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 нас в музее была выставка картин Исаака Левитана, друга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которая имела большой успех у сахалинцев, – отметила и.о. 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Партнером проекта выступ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доставившая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олстого в 90 томах из фонда особо ценных и редких документов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에게 <마슬레니짜> 전통명절 소개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은 <마슬레니짜>겨울전승명절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과 도시 관광객들을 초대한다.

<박물관에서 러시아문화의 날들>이란 박물관 기획의 일환으로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에 <마슬레니짜의 주간> 슬라이드쇼와 <고리 고리 야스노! (반짝반짝 빛나네!)>, <다함께 호로보드 (러시아 전통 원무)를>놀이들, 종이접기교실 <블린네 코뿔!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행사는 2월 21일, 22일 양일간 11시와 14시에 학령 전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화 72-75-75로 사전 문의와 신청을 한다고 주향토박물관은 알렸다.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знакомят с традициями празднования Масленицы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лашает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радициями празднования Масленицы.

Иг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музейного проекта "Дн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музее". Гости ждут слайд-шоу "Масленичная неделя", игры "Гори-гори ясно!", "Встанем вместе в хоровод", мастер-класс "Блин не комом!" (поделка из бумаги).

Мероприятие, рассчитанное на аудиторию дошкольного и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ов, состоится 21 и 22 февраля, начало в 11:00 и 14:00.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проводится по телефону:

72-75-55, сообщает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사할린 보드카 음주량에서 최고 기록

연방국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보드카를 가장 많이 음주하는 곳은 사할린으로 밝혀졌다.

로스타트(연방국가통계청)보고서에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 국민들의 주류 선호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선호도는 가장 대중적인 입장에 따라 샴페인, 포도주, 보드카, 맥주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9개월간 대부분의 샴페인 음주량은 모스크바에서 1인당 3.27리터이고 사할린은 1인당 3.11리터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드카 수요로는 사할린은 1인당 11.51리터로 가장 앞섰고 가장 가까운 경쟁자는 마가단으로 1인당 10.55리터였다.

맥주 음주량에서는 모스크바주가 1인당 98.02리터, 사할린 주민들은 1인당 66.94리터로 측정되어 9개월간 기록에서 9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도서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 순위상 10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보고기간 동안 러시아에서는 약 106억7500만 리터의 알코올 제품이 판매되었다고 전했다.

Сахалин стал рекордсменом по количеству выпитой водки

Больше всего водки в России выпив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К таким выводам пришла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 отчете Росстата содержатся сведения о том, каким спиртным напиткам россияне отдавали предпочтение чаще всего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2016 года. Выборка делалась по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позициям: шампанскому, вину, водке и пиву.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шампанского выпивают в Москве (3,27 литр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торым в этом списке идет Сахалин (3,11 литра). А вот в потреблении водк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казался лидером — 11.51 литра против 10.55 у ближайшего соперника — Магадана.

Больше всего пива в России выпили в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 98.02 литра. Сахалинцы с пенным напитком расправлялись скромнее — всего 66.94 литра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за 9 месяцев — девятый показатель. Не очень любят на островах и вино, в этом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 не вошел даже в десятку.

Всего в России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было продано 10 млрд 675 млн литров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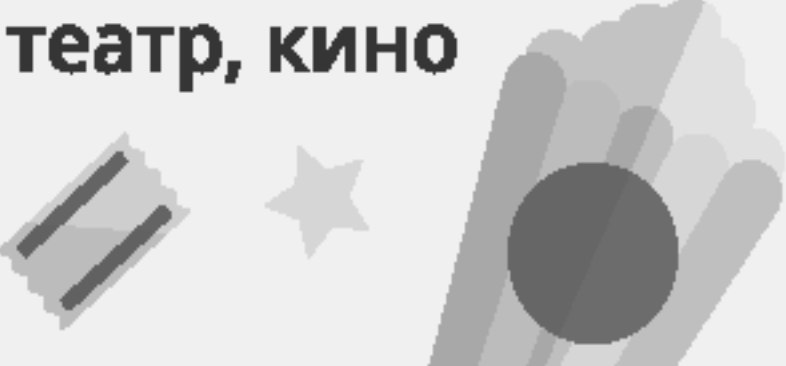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